

전주종합경기장 '정원의 숲' 조성 첫발 전주대사습청 개관식 가져

시, 조성 위한 설계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내년 말까지 총 27억원 투입 대규모 테마숲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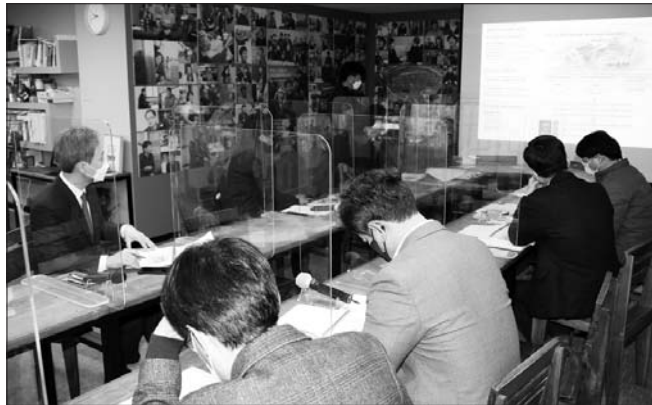
전주시가 지난 1963년 시민들의 성금으로 지어진 전주종합경기장을 부지 재생을 통해 시민들의 품으로 돌려주고자 '시민의 숲 1963'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가운데 야구장 뒤편을 대규모 테마숲으로 만드는 '정원의 숲' 조성 사업이 첫발을 내디뎠다.

시는 25일 전주시장실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최신헌 전주시 총괄조정과, 용역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 종합경기장 정원의 숲 조성'을 위한 설계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종합경기장 전체 5개의 숲(△정원의 숲 △미식의 숲 △미스의 숲 △예술의 숲 △놀이의 숲) 중 가장 먼저 착공되는 '정원의 숲'은 종합경기장 야구장 옆 청초차량 차고지와 양궁장 이전 부지 약 4100㎡에 대규모 테마숲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내년 말까지 총사업비 27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날 착수보고회에서는 '생태와 문화가 공존하는 시민의 숲'으로 설정된 기본목표를 통해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숲 조성 설계안을 마련하기 위해 심도 있는 논의가 펼쳐졌다.

시간의 쉼이 쌓인 기억의 정원이자 시민과 어린이가 함께하는 어울림의



전주시는 25일 전주시장실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최신헌 전주시 총괄조정과, 용역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 종합경기장 정원의 숲 조성'을 위한 설계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정원으로 만들겠다는 밑그림이 그려진 가운데 전체 공간을 △공경 담은 정원 △초화원덕 숲 △마당 품은 길 등 3개의 테마로 구성하는 방안이 설계전략으로 제시됐다.

'공경 담은 정원'에는 들관정원, 거울연못(미러폰드), 바닥분수, 돌담길 등으로, '초화원덕 숲'에는 비의 정원

(레인가든), 썬큰가든, 언덕이 있는 가든(힐가든), 가로수길, 보라 정원(바이올렛 가든) 등으로, '마당 품은 길'에는 하얀 정원(화이트 가든), 언덕길, 너른마당 등으로 채우는 방안이 제안됐다.

향후 시는 2개월간 시민의 숲 1963 전문가 자문단과 시민참여단 등의 의

견을 수렴하고, 보고회에서 제안된 의견들을 반영해 완성도 있는 설계용역 결과를 도출한 뒤 공사에 착수해 내년 말까지 조성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시는 정원의 숲 외에 예술의 숲과 미스의 숲 조성사업도 관련 절차를 이행 중에 있다. 종합경기장 자리에 들어설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전시관과 전주시립미술관의 경우에도 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이며, 전시컨벤션센터와 호텔, 백화점 건립사업도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 심사를 앞두고 지방행정연구원 타당성조사가 추진되고 있다. 종합경기장 대체시설인 육상경기장과 야구장 조성 사업도 편입부지 보상을 마치고 실시계획 용역을 한창 시행 중에 있다.

김승수 시장은 "정원의 숲을 시작으로 놀이와 예술, 미식, 미스 숲이 차례로 조성되면 도심 속의 거대한 숲을 이루어 시민들의 문화휴식공간으로 되살아날 것"이라며 "전시컨벤션센터와 호텔, 한국문화원형콘텐츠 체험전시관과 시립미술관 건립을 통해 종합경기장 부지를 시민들에게 온전히 돌려드릴 수 있도록 온 힘을 쏟아부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시, 전주대사습놀이 역사·전통 보존·계승 위해 건립

전주대사습놀이의 역사와 전통을 보존·계승할 전주대사습청이 공식 개관했다.

전주시는 25일 한옥마을 내 전주대사습청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강동화 전주시의회 의장, 송재영 사단법인 전주대사습놀이보존회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대사습청' 개관식을 개최했다.

전주대사습놀이의 역사와 전통을 보존·계승하기 위해 지난 5월 건립된 전주대사습청은 코로나19 여파로 개관식이 연기됐다.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라 뒤늦게 열리게 됐다.

이날 개관식에서는 전주대사습청 건립 경과보고와 헌관식 등이 진행됐으며 △지진훈(김덕숙) △가야금병창(강정열) △판소리(김나영) △경기민요(이호연 외 4명) △북춤(채형순) 등 축하공연도 마련됐다.

전주대사습청은 기존 전주소리문화관 부지(1315㎡)에 건물면적 486㎡ 규모의 지상3층 건물로 건립돼 △대청마루 △소리마당(150명 이상 수용) △오정숙 전시관 △연습실(4개) △연못정자(관객석 워터) 등을 갖추고 있다.

현재 대사습청은 전주대사습놀이 자료를 수집하고 전시하는 등 보존·관리에 집중하기 위한 아카이빙 TF팀을



가동하고 있으며, 전주대사습 전시관 구축사업을 펼치고 있다. 또 토요일 상설 공연, 특별 기획공연, 전주대사습 체험 프로그램 등 대사습 문화를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도 운영 중에 있다.

향후 대사습청은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의 운영 지원은 물론 전주대사습놀이의 무형문화재 등재를 위한 연구 및 조사활동을 이어나가면서 지역민과 관광객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문화 콘텐츠 발굴에 힘을 예정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전주가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전주대사습놀이와 같은 뿌리 깊은 전통을 오롯이 지켜가고 있기 때문"이라며 "전주대사습놀이를 세계적인 축제로 성장시키기 위해 대사습청을 중심으로 전문가들과 힘을 합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박차

전주시가 장애인들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소득 보장을 돕기 위해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고 있다.

시는 장애인 근로사업장 건립과 발달장애인 연주단 구성 등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시는 지난달 보건복지부의 '2022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에 선정돼 내년 12월까지 국비 8억1400만 원 등 16억2800만 원을 들여 조촌동 지역에 장애인 근로사업장을 건립할 계획이다.

시는 문화예술 분야 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도 확대한다. 대표적으로 발달장애인 관현악 연주단을 구성해 정기공연, 찾아가는 음악회,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활동을 수행하는 일자리 사업을 신설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들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역량 강화에도 집중한다.

더불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인 농촌진흥청과 협력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천만그루 정원도시 조성사업과 연계한 장애인 가드너 일자리도 지원할 방침이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전통한지 유네스코 등재 위한 학술포럼 가져

전통한지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한지 전문가 및 한지 산업 관련 업체와의 연계를 더욱 강화하고 한지 공동체 육성을 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주시와 전통한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추진단(단장 이배용)은 25일 한국전통문화전당 2층 공연장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강동화 전주시의회 의장, 이배용 전통한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추진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회 전통한지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학술포럼'을 개최했다.

지난 6월 안동, 9월 문경에 이어 세 번째로 개최된 이 학술포럼은 전주한지 세계화 및 한지산업 보급화라는 주제로 함한희 전북대 명예교수, 최성일 전주시장, 김보경 휘테스인터내셔널 대표, 정명준 전북대 교수 등 4명의 주제발표와 각 계각층의 전문가 9명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최성일 전주시장은 "세계 종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사례를 살펴보면 일본 화지와 중국 선지 등을 꼽을 수 있다"면서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 국제적으로 해당 유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관련 공동체의 자긍심이 고취됨으로써 무형유산을 보호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함한희 명예교수는 "향후 한지 실태조사, 한지 전문가 및 한지산업 관련 업체와의 연계, 한지 공동체 육성", 김보경 대표는 "한지 관련 단체와 정부기관의 한지공방을 지원"을, 정명준 교수는 "현재까지 연구된 종이 기록물 중 가장 보존성이 우수한 재료가 한지일 것"이라며, 한지의 보존성을 강조했다.

주제발표 이후에는 전통한지의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전문가 토론이 진행됐다.

향후 시는 이날 발표된 자료와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추후 전통한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에 요구되는 신청서 및 필요 자료 작성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과거 '한지골'로 불리던 흑석골 일원에 조성 중인 전통한지 생산시설이 내년 개관을 앞두고 있다. 시는 이곳이 조선시대 외교문서, 교지, 과거지 등으로 쓰여 왔던 고품질의 한지를 생산하는 거점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배용 추진단장은 "전통 한지의 고장, 전통과 문화가 살아있는 품격 있는 도시 전주에서 제3회 전통한지 학술포럼이 열린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추진단은 한지의 유네스코 등재는 물론 한지를 살리기 위한 범국민 운동을 펼쳐나갈 예정으로, 세계적으로 우리 전통한지의 우수성을 알리고 한지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2050 탄소중립' 실현 탄력

환경부 사업 선정 국비 확보... 공공건물 그린리모델링 등 추진

전주시가 덕진구청과 자연생태관 등 공공건물을 탄소중립 공공건축물로 탈바꿈시키고, 지역 곳곳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추가 보급한다. 이와 함께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를 기존보다 3배 이상 확대 운영하고, 시민 인식 개선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탄소중립 교육도 본격화하기로 했다.

시는 '2050 탄소중립'을 선도적으로 실현해 나가기 위해 △공공건물 그린리모델링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확대 운영 △전 시민 탄소중립 교육 등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최근 환경부가 주관한 '2022년 공공부분 목표관리제 탄소중립 지원사업'에 선정돼 국비 5억 원을 확보함에 따라 내년 7월까지 총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해 덕진구청사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덕진구청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고 건물 단열 강화 및 창호교체 등을 추진해 에너지 효율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시는 또 지난달 환경부의 '공공건물 탄소중립 모델 발굴 사업' 대상에 전

주시자연생태관이 선정돼 2년간 국비 80억 원을 지원받게 됐다. 시는 자연생태관을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공간이자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단열성능 강화 및 고성능 창호 교체, 각종 설비 교체 등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주관하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에 지난 2019년 이후 4년 연속 선정되는 성과도 거뒀다. 이 사업은 구역별 특성에 맞춰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2개 이상의 신재생에너지원을 복합적으로 설치하는 내용이다. 시는 내년에 10억 원을 들여 평화동, 노송동, 완산동에 신재생에너지를 보급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올해 차량 65대를 대상으로 자동차 탄소포인트 제도를 운영한 시는 내년에는 대상 차량을 200여 대로 3배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더불어 최근 탄소중립 시민강사 23명을 양성한 시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탄소중립 교육을 실시해 '2050 탄소중립' 실현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확산에 나서기로 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